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박희진** · 김정화***

본 연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M군에 위치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어머니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 어머니의 반응은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우울·불안과 공격성은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아동 공감 척도는 EQ-C(Emotional Quotient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Statistic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중심적 지지반응과 최소화 비지지적 반응이 가장 높았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중심 지지적 반응이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어머니의 처벌적 비지지적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모두 자녀의 공감 능력을 매개로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지지적 반응을 보일수록 공감 능력이 향상되며 이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의 공감 능력은 저하되고 이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과 행동적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부모-자녀 간 긍정적 정서상호작용을 위한 체계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어머니의 반응, 우울·불안, 공격성, 공감 능력

논문 투고일: 2025. 10. 27. 최종심사일: 2025. 12. 07. 게재확정일: 2025. 12. 26.

* 이 논문은 목포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 버리아리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Jeong Wha, 1666 Yeongsan-ro, Cheonggye-myeon, Muan-gun, Jeollanam-do, Korea.. 58554. E-Mail : jeongwhak@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수는 2018년 대비 75.8% 증가하였으며,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사례도 2018년 대비 93.1%나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 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순으로 경험하고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학생의 약 30%가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고, 교육부(2024)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목격률 그리고 가해 응답률이 모두 상승하여 폭력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지속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개입이 시급한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는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전환될 때 다양한 심리 및 행동적 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임지연, 2009). 성인기에 발현되는 정신장애의 상당수가 아동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의 정서·행동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보여 왔다(Rutter, 1984). 이렇듯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은 아동이 사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서발달과 긍정적인 사회화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은 생애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특히 초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는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발달 과제로 작용한다(Bronfenbrenner, 1979). 특히,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사회와 접촉하는 기본 단위로서, 깊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기본적인 행동 양식과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는 핵심적 장소이다. 아동은 부모의 양육과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며 사회적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은 아동의 성장, 발달 및 성숙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정서사회화

는 복잡한 과정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에게 바람직한 정서표현 방식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지지적 반응뿐 아니라 때로는 비지지적 반응으로도 나타난다(Eisenberg & Fabes, 1994). 이러한 정서적 상호작용은 일반적인 양육 방식 보다 아동의 정서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arni, 2007; Gottman · Katz, & Hooven, 1997).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이를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주로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해결적 반응, 감정표현 격려반응으로 구분된다. 반면,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반응 유형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 Cumberland, & Spinard, 1998; Eisenberg et al., 1994).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내면화(우울 · 불안) 및 외현화 문제(공격성)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울과 불안은 또래 관계, 학업 수행,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며 청소년기 이후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Kovacs & Devlin, 1998). 공격성은 또래 갈등, 학교폭력, 규범 위반 행동 등 부적응적 사회 행동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반사회적 행동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된다(Dodge · Lansford · Burks · Bates · Pettit · Fontaine, & Price, 2003). 부모의 낮은 애정표현과 과도한 간섭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문경주 · 오경자,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신체적 처벌과 같은 강압적인 양육 방식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연결될 수 있다(박성연, 2002; 김민정 · 도현심, 2001).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정서에 관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이강이 · 최인숙 · 성미영, 2007; Saarni, 2007; Eisenberg et al., 1994).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Pettit · Bates, & Dodge, 1997; Denham, 1993). 특히 아동이 위로나 지지가 필요할 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김은영 · 도미향, 2024; 송미라 · 한기백, 2015),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밀접한 공감 능력은 아동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

에 적절히 반응하는 복합적인 정서·인지적 역량을 의미한다(Eisenberg, 2007). 공감 능력은 크게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는 사고적 과정을, 사회적 공감은 이러한 이해와 정서를 대인관계에서 적절히 표현하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avis, 1983). 아동의 공감 능력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정서적인 대화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촉진된다. 이러한 대화는 아동이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감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현혜정,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은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이 원활하며, 친 사회적 행동이 증진된다. 부모 특히, 어머니의 지지적 정서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선정, 2019). 반대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공감 능력을 저해하여 또래 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권남희, 2017).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부분적으로 확인하거나, 공감 능력의 단편적 역할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을 구분한 구조적 경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아동의 공감 능력을 경유하여 우울·불안 및 공격성과 같은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유형의 반응별로 독립적인 모형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지지적·비지지적 반응이 아동의 공감 능력을 매개로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증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김윤정·이옥경·이혜원·조영일·이원혜, 2016). 우울증 등 내재화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홍주명·강지현, 2019).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고 그 표현을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과 위로를 함께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반응이 함께 결합할 때 그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과 같은 정서·행동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

의 정서적 반응(지지/비지지)이 아동의 공감 능력을 통해 정서·행동 문제(우울·불안, 공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조절 및 공감 능력 증진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어머니 반응의 유형별 접근과 공감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및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감능력을 매개로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M군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아동 36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어머니가 설문에 응답한 자료 357부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표집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맘카페 내 공지를 통한 참여자 모집, 사전 동의서 제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연구 대상자 적격성 검증을 위해 자녀 학년, 학교명, 거주지역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설정하여 조건 미달 시 자동 설문 종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인 확인 및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 휴대폰 번호 뒷자리와 자녀 생년월일 입력을 의무화하고 맘카페 가입 인증과 거주지 정보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불성실 응답 및 조건 미달 사례를 제외한 357명의 유효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확보하였다.

연구대상 아동 가정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년은 4학년이 154명(43.1%)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아가 221명(61.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61.3%가 외동이었다.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그리고 가구소득 등에 대한 조사결과

어머니의 연령은 41~45세가 157명(44.0%)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84명(79.6%)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직이 150명(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의 총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39.8%로 가장 높았다.

2. 연구 도구

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그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Eisenberg, Fabes 그리고 Bernzweig(1990)의 CCNES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를 김희정(1995)이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나누어진다. <표 1>과 같이, 지지적 반응은 감정표현 격려 12문항, 정서 중심적 반응 12문항, 문제 중심적 반응 12문항이며,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반응 12문항, 처벌적 반응 12문항,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12문항으로 총 72문항이다.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 표 1 >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하위요인	정의	Cronbach's α
지지적 반응	감정표현격려 반응	자녀의 감정 표현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반응	.84
	정서중심적 반응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반응	.90
	문제중심적 반응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반응	.87
비지지적 반응	최소화 반응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반응	.81
	처벌적 반응	자녀의 감정 표현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반응	.89
	심리적스트레스 반응	자녀의 감정에 대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받는 반응	.78
전체			.88

본 척도의 신뢰 계수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하위요인인 지지적 반응에서 감정표현

격려반응 .84, 정서중심적 반응 .90, 문제중심적 반응 .87이었고, 비지지적 반응에서 최소화 반응 .81, 처벌적 반응 .89,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은 .78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척도

동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표 2>와 같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은 13개 문항, 공격성은 19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해당 척도는 3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 계수 Cronbach's α 는 아동의 우울·불안은 .86, 아동의 공격성은 .91로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척도

변인	정의	Cronbach's α
우울 및 불안	자녀의 슬픔, 무기력감, 걱정, 두려움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	.86
공격성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언어적·신체적 행동	.91

3) 아동의 공감 능력

아동의 공감 능력은 Auyeung, Baron-Cohen, Allison, Atkinson, Samarawickrema, 그리고 Wheelwright(2009)이 개발하고 김혜리·이수미·엄진섭·이승복·차화정(2011)이 수정·번안한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모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표 3>과 같이,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이 각각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 계수 Cronbach's α 는 .88이며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 .73, 인지적 공감 .76, 사회적 공감 .76이다.

<표 3> 공감 능력 척도

하위요인	정의	Cronbach's α
정서적공감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73
인지적공감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75
사회적공감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76
전체		.88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적절성 및 문항에 대한 이해도, 응답 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어머니 6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통해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이해도와 응답 과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5월 25일부터 약 4주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어머니가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에게는 사전 안내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였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내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36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동의서 미제출 1부, 불성실 응답 3부를 제외한 35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자료는 SPSS Statistic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

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의 우울·불안과 공격성, 그리고 공감 능력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공감 능력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반의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우울·불안, 공격성, 공감 능력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우울·불안, 공격성, 그리고 공감 능력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평균 4.81(SD=.80)로 7점 척도 중앙값을 상회하여 중간 수준 이상의 지지적 반응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정서중심 반응(M=4.9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어머니들이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정서중심적 접근을 주로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비지지적 반응은 평균 3.54(SD=.86)로 중앙값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자녀의 우울·불안(M=1.66, SD=.42)과 공격성(M=1.60, SD=.42)은 모두 중간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연구 참여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정서행동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녀의 공감 능력은 평균 2.95(SD=.45)로 4점 척도 중앙값을 상회하여 중간 수준 이상의 공감 능력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공감(M=3.05)이 인지적·사회적 공감(각각 M=2.91)보다 높아 아동들의 직감적 감정 공유 능력이 상대적으로 발달 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4> 어머니의 지지적·비지지적 반응, 자녀의 우울·불안, 공격성의 정도

(n=357)

구분		M	SD	왜도	첨도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감정표현격려 반응	4.67	.80	.41	.25
	정서중심 반응	4.90	.89	.19	-.42
	문제중심 반응	4.87	.86	.15	-.35
	전체	4.81	.80	.33	-.18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최소화 반응	3.77	.89	.03	.30
	차별적 반응	3.35	1.07	.16	-.68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3.48	.84	-.46	-.12
	전체	3.54	.86	-.08	-.43
자녀의 우울·불안		1.66	.42	.14	-1.01
자녀의 공격성		1.60	.42	.33	-.91
자녀의 공감 능력	정서적공감	3.05	.47	-.24	.19
	인지적공감	2.91	.51	.11	-.58
	사회적공감	2.91	.55	-.50	-.57
	전체	2.95	.45	.15	-.96

1.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및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및 비지지적 반응, 자녀의 우울·불안, 공격성, 공감 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변인을 포함한 Pearson 상관분석을 우선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우울·불안($r=-.45, p<.001$)과 공격성($r=-.44, p<.001$)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녀의 공감 능력($r=.55,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우울·불안($r=.59, p<.001$)과 공격성($r=.52,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의 공감 능력($r=-.66,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 공격성,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 공격성,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를 보면,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상,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모형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0.53, p<.001$). 분석 결과, 지지적 반응 중 정서중심 반응($\beta=-.55, p<.001$)이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표현 격려($\beta=.17, p>.05$), 문제중심 반응($\beta=-.09, p>.05$)은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중 정서중심 반응이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불안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n=357)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우울 · 불안	(상수)	2.74	0.12		23.05***		
	감정표현격려 반응	0.09	0.04	0.17	2.05	0.32	3.17
	정서중심 반응	-0.26	0.05	-0.55	-5.20***	0.19	5.33
	문제중심 반응	-0.04	0.05	-0.09	-0.82	0.18	5.68
R ² =.25, Adj.R ² =.25, F=40.53***, Durbin-Watson=1.81							

***p<.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6>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모형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2.32, p<.001$). 분석 결과, 지지적 반응 중 정서중심 반응($\beta=-.41, p<.001$)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표현 격려($\beta=.03, p>.05$), 문제중심 반응($\beta=-.09, p>.05$)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중 정서중심 반응이 높을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n=357)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공격성	(상수)	2.69	.12		21.96***		
	감정표현격려 반응	.02	.04	.03	.36	.32	3.17
	정서중심 반응	-.19	.05	-.41	-3.75***	.19	5.33
	문제중심 반응	-.04	.06	-.09	-.79	.18	5.68
R2=.21, Adj.R2=.21, F=32.324***, Durbin-Watson=1.57							

***p<.001

2)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 공격성,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을 보면,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상,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모형의 설명력은 37%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1.09, p<.001). 분석 결과, 비지지적 반응 중 처벌적 반응($\beta=.36$, p<.001),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beta=.34$, p<.001)이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소화 반응($\beta=-.06$, p>.05)은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중 처벌적 반응과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n=357)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우울 · 불안	(상수)	.71	.09		8.01***		
	최소화 반응	-.03	.03	-.06	-.89	.36	2.78
	처벌적 반응	.14	.03	.36	4.23***	.24	4.10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17	.04	.34	4.70***	.34	2.91
R2=.37, Adj.R2=.37, F=71.09***, Durbin-Watson=1.92							

***p<.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8> 같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모형의 설명력은 3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1.60, p<.001$). 분석결과, 비지지적 반응 중 처벌적 반응($\beta=.40, p<.001$),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beta=.25, p<.001$)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소화 반응($\beta=-.090, p>.05$)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중 처벌적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n=357)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공격성	(상수)	.79	.09		8.47***		
	최소화 반응	-.04	.04	-.09	-1.20	.36	2.78
	처벌적 반응	.16	.04	.40	4.42***	.24	4.10
	심리적스트레스 반응	.13	.04	.25	3.357***	.34	2.91
R2=.30, Adj.R2=.30, F=51.60***, Durbin-Watson=1.74							

*** $p<.001$

2.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및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감능력을 매개로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및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정서적 반응 유형이 자녀의 공감 능력 및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매개경로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1)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감능력을 매개로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55, p < .001$), 자녀의 공감 능력은 우울·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7, p < .001$).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표 9>,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LLCI = $-.21$, ULCI = $-.13$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간접적 경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으로 반응할 때 자녀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자녀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경로	B	SE	LLCI	ULCI
지지적 반응→공감 능력→우울 및 불안	-.17	.02	-.21	-.13

* 95%의 신뢰수준에서 검정

다음으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 분석 결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공감 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55, p < .001$), 자녀의 공감 능력은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2, p < .001$).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표 10>,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LLCI = $-.22$, ULCI = $-.15$ 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공감 능력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자녀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자녀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경로	B	SE	LLCI	ULCI
지지적 반응→공감 능력→공격성	-.18	.02	-.22	-.15

* 95%의 신뢰수준에서 검정

다음으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고 이어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지를 검토하였다.

2)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감능력을 매개로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계속하여,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 분석 결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공감 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67, p < .001$), 자녀의 공감 능력은 우울·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5, p < .001$).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표 11>,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LLCI = .11, ULCI = .1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감 능력 저하를 통해 우울·불안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정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우울·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자녀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경로	B	SE	LLCI	ULCI
비지지적반응→공감 능력→우울·불안	-.15	.02	.11	.19

* 95%의 신뢰수준에서 검정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 분석 결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공감 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67, p < .001$), 자녀의 공감 능력은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7, p < .001$).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표 12>,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LLCI = .14, ULCI = .2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감 능력 저하를 통해 공격적 행동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정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해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자녀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경로	B	SE	LLCI	ULCI
비지지적반응→공감 능력→공격성	.19	.02	.14	.23

* 95%의 신뢰수준에서 검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지지적일 때와 비지지적일 때 자녀의 우울·불안,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녀의 공감 능력이 이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정서중심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반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그 감정을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비지지적 반응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녀의 정서표현을 억제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게 만들게 되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Denham, Bassett, & Wyatt, 2007; Eisenberg et al., 1998).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반응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공감 능력, 정서조절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Eisenberg · Fabes · Madden-Derdich, & Poulin, 2002; Gottman et al., 199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하위요인 중, 정서중심 반응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표현이 아동의 우

울증상을 완화하고(이동귀·장은혜, 2014),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또래와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혜경(2020)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분노 정서 조절 능력을 조절하며 이를 통해 공격성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감소된다는 연구(Shortt·Stoolmiller·Smith-Shine·Eddy, & Sheeber, 2010; Valiente·Lemery-Chalfan, & Reiser, 2007; Gottman et al., 1997)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위요인 중 처벌적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 수준이 상승한다는 연구(최미경, 2012; 정운주, 2004; 문경주·오경자, 2002)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이 자녀의 사회적 부적응을 촉진한다는 연구(김지연·남은영, 2011; 전숙영, 2007; Gottman et al., 1997; Buck, 1984)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녀의 불안·우울 및 공격성과 같은 정서·행동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처벌적이거나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정서·행동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정서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문제행동 예방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모두 자녀의 공감을 매개로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표현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대로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의 공감 능력은 저하되었고, 이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은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지지적 정서 반응이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공감 능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능력의 향상이 부적응 행동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심진숙, 2009; 홍선아, 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공감 능력을 저해하여 또래 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권연희, 2003)와 같으며, 공감 능력이 부족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유연

경, 2013; 김미라, 2009; 하영희, 2004; 김현수, 1997)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지지적 정서 반응이 자녀의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녀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수용하는 태도가 아동의 정서발달과 정서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Hajal & Paley, 2020). 반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수용 그리고 정서적 교감이 부족할 때, 자녀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고 회피하는 등의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는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나 외현화 문제(공격성,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지지적·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공감 능력이 이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공감 능력을 강화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비지지적 반응은 공감 능력을 저해하고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부모교육과 자녀의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예방 및 중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의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 차이와 지역별 교육환경 및 가정환경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전라남도 읍 단위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 둘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방법론적 제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식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응답자의 주관적 편향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일 정보원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측정 오차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셋째, 온라인 맘 카페를 통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함에 따라 특정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선택 편향은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 동의서 제출을 통한 설문 참여 절차와 참여자 자녀의 학년, 학교, 거주지 정보 검증을 통해 연구 대상 적격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중 보고를 통한 다원적 관점 확보와 지역별·계층별 표본 다양성 증대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최근 5년간 정신병원 아동·청소년 입원 사유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 교육부(2024). 2024년 1차 및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https://www.nhis.or.kr>
- 권남희(2017). 청소년의 부모 관련 변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과 친 사회 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 관계 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 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라(2009). 중학생의 학업성취압력 지각과 공감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 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윤정·이옥경·이혜원·조영일·이원혜(2016). 위협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1), 1-23.
- 김은영·도미향(2024).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부모교육연구**, 21(1), 29-47.
- 김지연·남은영(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6.
-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아동의 또래 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리·이수미·엄진섭·이승복·차화정(2011). 자기보고형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EQ-C) 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63-81.
- 김희정(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 및 세대 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송미라·한기백(2015). 과학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 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4), 93-111.
- 심진숙(2009). 공감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와 도움행동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정(2019). 부모의 공감 능력과 유아의 공감 능력, 배려 행동,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 이혜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K-CBCL 아동 · 청소년 행동 평가검사**.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유연경(2013).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 · 최인숙 · 성미영(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적 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87-199.
- 이동귀 · 장은혜(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3)**, 5-38.
- 이혜경(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 지각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33-48.
- 임지연(2009).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 언어 통제 유형.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아동의 성과 또래 수용도의 중재 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최미경(2012). 부부 갈등 및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 **한국아동연구**, **33(5)**, 163-180.
- 하영희(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 Summer. <https://www.kedi.re.kr/images/download/PDF>
- 현혜정(2020). 학령기 아동의 공감 능력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선아(2008). 공감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명 · 강지현(2019). 중학생 자녀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 **10(4)**, 125-164.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152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NY: Guilford Press.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 - 126.
-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5), 715-728.
- Denham, S. A., Bassett, H. H., & Wyatt, T. (2007). *The Socialization of Emotional Competence*. In J. E. Grusec &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614 - 637). Guilford Press.
- Dodge, K. A., Lansford, J. E., Burks, V. S., Bates, J. E., Pettit, G. S., Fontaine, R., & Price, J. M. (2003). Peer rejection and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2), 374-393.
- Eisenberg, N. (2007).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ur. In Novartis Foundation Symposia : (vol. 278, 71-80; discussion 80-96, 216-21).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Bre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Procedure and Scoring: Unpublished scale available from the authors. Tempe: Arizona State University.
- Eisenberg, N., Fabes, R. A., Madden-Derdich, D. A., & Poulin, R. E.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3), 285-310.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Psychology Press.
- Hajal, N. J., & Paley, B. (2020). Parental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A critical target of study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to promote child emotion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6, 3, 403-417.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ird Edition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e Guilford Press.
- Kovacs, M., & Devlin, B. (1998).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47-63.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 - 923.
- Rutter, M. (1984). Psychopathology and development.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18(3), 225-234.
- Saarni, C. (2007).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Pathways for helping children to become*

- emotionally intelligent. In R. Bar-On, J. G. Maree, & M. J. Elias (Eds.), *Educating people to be emotionally intelligent*, 15 - 35. Praeger Publishers/Greenwood Publishing Group.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 Chaotic families, parental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 249 - 267.

Abstract

The Influence of Mother's Emotional Response on Child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Mediating Effects of Child Empathy Ability

Park Hee jin* · Kim, Jeong wh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maternal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in stressful situation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357 fourth- to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 County, Jeollanam-do, and their mothers.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CCNES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K-CBCL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EQ-C, and SCRS instrumen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maternal emotion-focused supportive responses significantly reduced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while punitive and distress responses increased these problems. In addition, children's empathic abil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sponses and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mothers' response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Keywords : child'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mother's emotional response, depression/anxiety, aggression, child empathy ability

* Director, Belaria Psychological Counseling Institute.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Studies, National Mokpo University.